이상벽

정훈희

송창식

김세환

세시봉 친구들 광주콘서트

추억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때 그시절'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밤

중년에겐 청춘을, 젊은세대엔 진솔한 음악 선물

4월 20~21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일보 창사60주년 since 1952

1970년대 서울 무교동에 위치했던 '세시봉'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감상실.

이곳에는 노래가 있고, 낭만이 있었다. 조영남·송창식·정훈희·한대수·이남이 등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를 들으며 또 많은 이들은 추억을 만들었다. 한시대를 풍미한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로 성장한 이들은 다양한 음반을 내놓으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

지난 2010년 '불쑥' MBC TV '놀러와'에 출연했던 송창식·윤형주·김세환·조영남은 노래를 불렀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세시봉 열풍'이 몰아쳤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음악과 진솔한 가사들은 '노래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그들과 같은 시대를 보내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던 세대 뿐 아니라, 가벼운 가사와 요즘의 대중음악에 길들여져 있던 젊은 세대들의 감성도 일깨웠다.

열풍은 음반 판매로 이어졌고, 그들이 펼치는 라이브 공연장에는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세시봉 친구들 콘서트 두번째 이야기'가 광주를 찾는다. 4월20일~21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세시봉'에서 '대학생의 밤'을 진행하며 데뷔한 MC 이상벽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반가운 손님이 출연한다. 윤형주가 빠진 아쉬움을 달래 줄 가수는 역시 세시봉에서 활동했던 정훈희.

17세의 나이로 작곡가 이봉조를 만나 '안개'로 데뷔한 정훈희는 제 1회 도쿄가요제 등 6번의 국제가요제에서 입상한 한국의 대표가수다. 특히 청아한 목소리와 3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이 장기. 이번 무대에서는 '꽃밭에서', '무인도', '그 사람 바보야' 등 히트곡을 들려준다.

미당 서정주 선생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슬픔을 뼈에 저리게 느끼어 노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던 가수 송창식의 공연도 기대되는 무대다.

수많은 히트곡을 자랑하는 송창식은 '한번쯤', '나의 기타 이야기', '담배가게 아가씨' '고래사냥' 등을 선사한다. 다른 악기 없이 국내 최고 기타리스트로 꼽히는 함춘호와 송창식이 연주하는 두 대의 기타 연주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또 환갑을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는 '영원한 청년' 김세환은 '사랑하는 마음', '길가에 앉아' 등을 부른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듣는 히트곡들은 콘서트에서만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선물이다.

송창식과 정훈희는 '안개', '하얀 손수건', '축제의 노래'를 들려주며 여기에 김세환이 합류 '웨딩 케익' '그대 그리고 나' 등을 선사한다. 가수 조영남과 송창식을 발굴하기도 했던 최고의 MC 이상벽이 출연자들과 나누는 '집중 토크'는 관객들과 가수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티켓 가격 11만원~7만7000원. 문의 062-220-0525, 1544-15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관에 간 선생님들

교직원들 한국화 등 55점 전시…27일부터 시립미술관

교직원들의 예술적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7일부터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선생님, 우리 미술관 가요'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교직원들이 연수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한국화·서양화·공예·조소·사진 등 광주지역 교직원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 55점이 전시된다. 전시회를 빼곡히 채운 작품 하나 하나에 교직원들의 열정이 담겨 있다.

일상적 대상이나 소재를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신선함이 돋보이고 일반인의 수준을 웃도는 작품도 적지 않다.

전시 기간 중에는 '삶과 함께하는 창조적 미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613-713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경희 '천수패 자수'

임수준 '산책'

풍물굿·난타에 신명나는 하루

우리문화예술원 내일 '통통장터'

'삼월 삼짇날, 신명나게 놀아봐요.'

(사)우리문화예술원(대표 : 김태훈)은 삼월 삼짇날인 24일 오후 3시 푸른길 분수공원(옛 산수동 굴다리터)에서 '푸른길 통통문화장터'를 개최한다.

우리문화예술원은 단오, 칠석 등 음력으로 달과 일이 같은 날을 '통통(Tong&通) Day'로 이름 짓고, 문화행사를 열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통 엽서 쓰기, 통통 솜사탕과 우리 차 나누기, 화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또 '통통스타킹'에서는 주민들의 장기자랑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무진농악단의 푸른길놀이, 풍물판굿, 난타, 시렁설장구 등이 선보인다.

전문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통통음악회는 전통문화예술단 '굴림'의 풍물 재수굿, 가야금 산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523-0474. /김미은기자 mekim@

광주문화재단, 문화나무 예술단 초청 공연

내일 전통문화관

무등산 자락에 둥지를 튼 전통문화관이 매주 토요일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민들을 맞는다.

24일 오후 3시에는 문화관 서석당에서 '문화나무 예술단 초청 공연'을 갖는다.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나무예술단은 자발적 재능 기부를 하는 개인과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전통 음악인 송추월, 이동인, 박문진씨와 여수세계청소년축제 초청공연 등을 진행했던 문성고 사물놀이패 '산울림'이 출연해 민요와 춤, 풍물을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

'여성주의, 소통을 말하다!'

광주여성재단 27일부터 인문학강좌

광주여성재단이 인문학 강좌 '여성주의와 인문학의 조우'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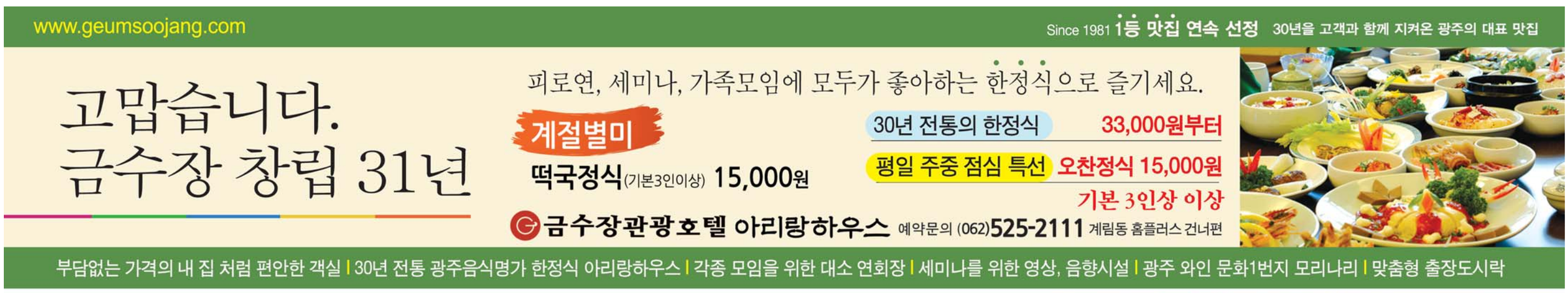
'여성주의, 소통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오는 27일부터 11월6일(오전10시~낮12시30분)까지 모두 8차례 열리며 한차례 현장 답사도 진행한다.

27일 여성학자 정희진씨의 '여성주의와 인문학'이 첫강의로 마련되며 이화경(소설가)씨의 '버지니아울프와 밤을 새다'(4월3일), 최혜영(전남대 사학과)씨의 '21세기에 읽는 그리스 신화와 여성'(4월10일), 이현재(서울시립대 HK교수)씨의 '여성주의 연대 어떻게 가능한가?'(5월8일), 김찬호(성공회대교수)씨의 '마음의 발견, 삶의 디자인'(7월3일) 강의가 이어진다.

또 문학평론가 권혁웅씨의 '사랑에 대한 탐구'(7월10일), 김신명숙(문화미래 이프 편집인)씨의 '우리시대 여성주의가 할일은 무엇인가'가 준비돼 있다. 10월에는 여성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공간인 마을기업과 행복기업을 답사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화경

김신명숙

강의는 여성재단 사무실에서 열리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62-67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